

雲門

불기 2561년
가을호
통권 제142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와 열정이 식어버린 제법 쌀쌀해진 이 가을은 더 따뜻한 눈빛과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된 화엄반의 운문사에서 마지막 가을입니다. / 대교과 도우
- ☘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물든답니다. 수행자의 삶을 선택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맑은 삶을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 대교과 시우
- ☘ 나무마다 영글어 가는 열매들을 보며 운문사 4년의 결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강원생활 한번 더, 회향까지 여 일하게 정진할 수 있기를 발원해 봅니다. / 대교과 무이
- ☘ 결실의 계절, 청량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기분 좋은 가을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수행의 열매 가득 맺으시기 바랍니다. / 사교과 성훈
- ☘ 울긋불긋한 가을날의 단풍 아래 묵묵히 정진하는 뿌리처럼 저의 산심이 견고하여 퇴전하지 않기를 발원합니다. / 사교과 도원하
- ☘ 잎사귀마다 붉음이 찾아오는 이 계절, 그 어떤 책보다 경전 속으로 꼭 젖어두고 싶습니다. / 사교과 현문
- ☘ 높고 푸른 하늘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가을입니다. / 사집과 혜중
- ☘ 이 한철 오백나한님과 함께 시작하고, 바쁜 가을철 마음 복발 무르익어 알찬 나날 되기를, 제대성중 제대성중 제대성중 / 사집과 서림
- ☘ '담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치문 도반스님들, 치열한 만큼 한층 더 성숙해지고, 매 단계마다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 사미니과 승혜
- ☘ 시간은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고 있으니, 운문사에서 생활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은 또 얼마나 빠르게 스쳐 지나갈까요? Here & Now, 매 순간 순간 행복한 수행자가 됩시다. / 사미니과 범성

雲門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사람을 살리는 칼 명성
06 교수논단	능엄경 이야기 II 온광
11 想	秋 창일
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인공지능 로봇스님 원모
14 학인논단	그들은 왜 서천으로 갔는가 『서유기』를 읽고 2 우연
17 깨달음으로 가는 길	있는 그대로 William Stafford, 서광욱김
18 선방에서 온 편지	이것이 무엇인가? 자광
20 외부기고	미황사 템플스테이가 남긴 여운 손미숙
24 수행의 두레박 하나	아직도 운문사 화엄반은 청도군수보다 좋습니다 도우
26 수행의 두레박 둘	불빛따라 한 생각 불수
28 수행의 두레박 셋	公案과 話頭 로운
30 수행의 두레박 넷	福은 德에서 나오는 것이지 罪의 有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선아
32 자유기고	육바라밀에 대한 단상 자우
34 선지식 탐방	삭발염의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동호
37 풍경소리	보현등 도행
38 대학원성지순례	대학원 일본 졸업여행기 월인
42 인도성지순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파
46 차례법문	간절한 마음 지옥下
48 운문, 운문인	수행, 익어가다 편집부
50 이 한권의 책	시코쿠를 걷는 여자 탁녘
52 운문논평	사홍서원 이정표 따라가기 범광
54 운문소식	
55 등불	發想 편집부



사람을 살리는 칼

명성 / 운문사 회주



2017 도계음악회 축사

운문사 경내와 보리수 수목원에 있는 감나무들의 감이 주렁주렁 달려 주황색으로 물들면서 가을빛을 물씬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쓸쓸년스러운 가을바람 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더욱더 실감나게 합니다.

바뀌어가는 계절 속에서 수행자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도반들과 함께 하는 삶, 상반과 하반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강원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불가佛家에서 내려오는 선어禪語 가운데 ‘살인도활인검殺人刀活人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선가禪家의 용어로 쓰였으며 전혀 검술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어禪語란 스승이 제자를 단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절차탁마하는 가운데 탄생한 세련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도는 칼날이 한 쪽만 있고, 검劍은 양날이 있는 칼이지요. ‘살활자재殺活自在’는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유롭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양극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선과 악, 강자와 약자, 삶과 죽음, 좋아함과 싫어함, 개인과 사회, 권리와 의무, 남과 여, 매크로와 마이크로, 유기물과 무기물, 높음과 낮음 …… 상호 모순되는 이들 극極은 항상 대립하고 분단됩니다. 적군과 아군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면 내 편이라는 개념이 적을 만들어냅니다.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달마를 찾아간 혜가는 허리까지 쌓인 눈발 속에서 팔을 꿰어내면서까지 법을 구하였습니다. 불교인이라면 한번쯤 귀에 스쳤던 말입니다. ‘단비구법斷臂求法’입니다. 자비를 가르치고 안심법문安心法門을 표방하는 불교입니다. ‘살인殺人’이나 ‘활인活人’이라는 용어는 웬지 불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수행자로서 몸과 마음을 닦아가는 자유자재한 작용을 가리킵니다. 살인殺人の 작용은 활인活人이 전제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の 작용이 사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살인殺人の 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살인殺人’은 버리는 것, 버리게 하는 작용이며, ‘활인活人’은 획득하는 것, 손에 넣는 것, 내 것으로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수행해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미혹이나 욕망, 그리고 집착을 단번에 끊어내는 일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근본부터 바꾸려고 한다면 자기를 향하여 “살인도殺人刀”를 휘둘러야만 합니다. 어중간한 상태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제자를 향하여 가차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장점에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 가차없이 버려야만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살인도활인검殺人刀活人劍’ ……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구정녕한 친절은 무엇인지, 깊이깊이 궁구해야만 합니다. ☸

능엄경 이야기 II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I. 서론

1. 드라마틱한 능엄의 시작
2. 아난! 그대는 왜 출가를 하였는가

II. 본론

1.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칠처징심)
2. 천개의 달, 천개의 바람, 천개의 불꽃
3. 대승불교의 이해
 - 1) 능엄경의 세계관
 - 2) 능엄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와 중생의 시작
 - 3) 윤회하게 된 이유를 물으신다면

III. 결론

3. 대승불교의 이해

1) 능엄경의 세계관

능엄경 제4권에서 부루나 존자는 “세존이시여!
만약 세간의 모든 오온·육근·육경·육식·십이

처·십팔계⁵⁾ 등이 그대로 다 여래장이어서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홀연히 산과 강, 그리고 땅덩어리 같은 가지가지 모습이 생겨나서 차례로 변천하여 끝마쳤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이 세계가 그대로 밝고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세계, 여래장의 세계라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유마경』의 「불국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적이라는 아주 멋진 청년이 그의 친구들 500명과 함께 부처님들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궁금해하며 불국토佛國土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중생들의 국토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라고 말씀하신다. 멋지고 화려한 빛으로 장엄된 청정한 보배궁전을 기대했던 보적은 뜻밖의 대답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고 의아한 생각에 휩싸이게 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러한 중생세계가 그대로 여래의 불국토란 말이지? 사바세계가 온갖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 청정함과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 사바세계의 온갖 불평등과 불합리함, 옳고 그름, 깨끗함과 더러움의 혼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설명해주시기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높고 낮다는 분별이 아직 남아 있고,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높고 낮음과 아름답고 추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여전히 이곳은 부처님들의 국토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마경』에서는 분별심 때문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능엄경』에서는 본래가 여래장이고 불국토인 이 세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고래와 독수리, 인간 그리고 불보살님이 보는 세계

- 동분망견同分妄見. 별업망견別業妄見⁶⁾

이 우주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그들만의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큰 범주에서 분류된 후 다시 세밀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류, 조류, 양서류, 포유류, 인간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한없이 세분화되어 각각 개별적인 개체로 분류되는데 고래와 독수리 인간으로 분류를 한다고 가정하면 물 속에 사는 어류들이 보고 듣는 방식과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과 인간이 보고 듣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업으로 보게 되는 것을 동분同分이라고 하며, 인간 중에서 각각의 독특한 환경에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별업別業이라고 한다.

저기 보이는 산과 나무, 푸른 바다, 빨간 사과 는 우리 인간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다른 존재들은 그것이 산이나 빨간 사과로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공동의 업을 가진 우리들이 그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학습과 약속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여 그렇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바세계는 인간들만의 공간이 아닌데 어찌 인간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을 전부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고래와 독수리 등 그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는 그들 나름의 각각의 세상이 펼쳐지고 사라지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일까? 아니

면 이 모든 것은 실은 허상이고 사이버 공간 속의 가상의 세계일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견正見이 아닌 망견妄見이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동분망견이든 별업망견이든 그것은 잘못된 견해로써 자기들이 지어온 업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의 생존방식으로 세상을 잔뜩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란 언감생심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감지하고 있는 색채라는 것도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육안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소리라는 것도 인간의 귀에 들리는 그 범위 밖의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크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실지견을 가진 불보살님들의 눈에는 이 세계가 청정한 여래장의 세계, 화엄의 세계로 펼쳐져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 중생들은 무슨 이유로 눈이 어두워지고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혀 영똥한 세상에 채널을 맞춰 헛된 것만을 보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음에서 전개된다.

2) 능업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와 중생의 시작

세계기시世界起始. 중생기시衆生起始

자비롭고 친절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5) 오온五蘊 : 색色(물질), 수受(느낌), 상想(표상작용), 행行(생각과 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식識(의식작용)

육근六根 : 여섯 개의 감각기관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눈, 귀, 코, 혀, 몸, 의식)

육경六境 : 감각기관의 대상.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빛깔, 소리, 향, 맛, 촉감, 인식된 모든 현상)

육식六識 :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12처 : 육근 + 육경

18계 : 6근 + 6경 + 6식

6) 두 가지 전도된 망견으로 동업으로 보는 것과 별업으로 보는 두 가지 妄見이다. 별업이란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말한 것이니 허망하게 반연의 그림자를 쫓아 정견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요, 동업이란 그 느끼는 妄이 서로 같음을 말한 것이니, 허망하게 생사를 쫓아 본래의 깨어 있음(本覺)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妄見 때문에 妄業을 짓게 되는 것이다. 『계환해』 『근속장경』17, p.717하. 별업망견은 눈에 적생赤塵이 있으면 밤에 등불을 볼 때 중첩된 원영圓影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 동업망견은 좋지 못한 경계를 함께 감득感得한다고 했으니, 같은 섬 안에서 이윽에서는 보지 못하는데 망견으로 인하여 이쪽 마을의 중생들만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의 답변이 『능엄경』에서 제시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우주의 최초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이다.

너무나 간단명료한 결론은 우주의 최초 시작은 '한 생각'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⁷⁾는 것이다. 물리학이나 우주과학에서 말하는 빅뱅과 같은 우주 대폭발이라는 학설과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주진심常住眞心이 항상 우리 곁에서 소소영영하게 빛나고 있으며, 본래 하나의 세계였는데 부질없이 주관과 객관 즉 능소能所로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경계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 둘이 아닌 하나였는데 갑자기 무명 때문에 나와 대상으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최초의 우주가 시작되었다니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좀더 깊은 사유가 요구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시작은 물질로부터가 아니다. 또한 위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어 이것저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는 그런 일도 당연히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 생각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이 서로 작용하면서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오래되면 번뇌가 발생하여 혼탁해지고 오염되기 시작하여 이러한 작용으로 세계와 허공이 생성된다.

우주는 허공계를 근본으로 해서 어두운 기운과

밝은 기운이 만나면서 동요가 있게 되어 풍륜風輪 즉 바람이 형성된다. 밝은 기운이 딱딱하게 굳어져 금륜金輪이 성립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바람과 금륜이 마찰하여 화륜火輪 불빛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불은 위로 치솟아 중 발해 버리기 때문에 수륜水輪이 생겨 지방세계를 감싸게 되었다.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서 서로 어울려 견고함(堅)이 생기고, 젖은 것은 바다가 되고 마른 것은 육지가 된다. 이런 이유로 큰 바다 가운데서 화광火光이 항상 일어나고, 저 육지 가운데는 강물이 항상 흐르게 되는 것이다. 물의 힘이 불보다 약하면 응결되어 높은 산이 되니, 그러므로 산의 돌이 부딪치면 불꽃이 나고, 녹으면 물이 된다. 흙의 힘이 물보다 약하면 땅에서 초목으로 돌아나게 되는 것이며, 숲이 타고 나면 흙이 되고, 흙을 쥐어짜면 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생각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허망함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러한 허망함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밝은 이치가 허망함을 초탈하지 못함으로 해서 듣는 것은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는 것은 색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상의 세계에 갇히게 되므로 인하여 소리 너머의 세계와는 영영 멀어지게 된 것이다. 즉 빛깔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의식의 대상 등 여섯 가지 대상이 이루어져, 이로

7) 근본무명의 시작으로 覺은 원래 밝으니 밝힐 대상이 아니다. 無明이 본래 없는데 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 성각性覺은 반드시 본래로 밝음(必明)인데 부질없이 밝힐 각(明覺)을 삼는 것 그것이 무명이다. -

원각경 문수장에서는 무명無明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무엇이 무명인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예로부터 갖가지로 전도됨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네 방위를 잘못 알아 헤매는 것과 같고, 사대四大를 자신의 몸으로 착각하며 육진六塵을 반연한 그림자로서 자기의 마음을 삼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눈병 난 이가 허공 가운데 꽃을 보고 달을 두 개로 보는 것이다.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거늘 눈병 난 사람은 헛되이 집착하니, 이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그 꽃이 생겨나는 근원을 또한 혼동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생사에 허망하게 돌고 도나니 이것이 무명이니라.

허공계 → 풍륜 → 금륜 → 화륜 → 수륜의 순서로 이 세계가 형성된다.



그림 / 사교과 도형



인하여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이는 작용의 범주 안에서, 같은 업(同業)끼리 견해가 같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 미워하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알로 태어나는 것, 태胎로 태어나는 것, 축축한 습기로(濕) 태어나는 것, 변화하여 태어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중생으로 태어나 끝도 없는 윤회를 하게 된 것이다.⁸⁾

업과기시業果起始

우리는 업을 지음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되는데 살생과 도둑질 그리고 애욕이 생사 윤회의 원인이 된다.⁹⁾

애욕의 문제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누군

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파만파의 좋고 나쁜 일이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부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져서 좀처럼 끝나거나 끊어질 수 없는 윤회의 바퀴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악육강식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계 속에서는 힘의 강약에 따라 번갈아 서로 잡아먹으니 예를 들면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어서 이렇게 모습을 바꾸어 번갈아 서로 잡아먹되 악업으로 인하여 함께 태어나는 것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계속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에 밧졌고 그 밧을 갚아야 하므로 백천 겁이 지나도록 언제나 생사의 세계에 남게 되는 것이다.

8) 사생四生 : 태生 卵生 濕生 化生으로 삼계의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태어나는 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중일아함경』 권17 (대정장2, p.632a8), 『구사론』 권8 (대정장29, p.43c21)에 따르면 난생이란 알에서 태어나는 거위·공작·닭·뱀·따위의 중생을 말한다. 태생이란 모태에서 태어나는 사람, 코끼리·말·소·양 따위의 중생을 말하며, 습생이란 대소변 더미·하수도·변소·색은 고기·수물 등의 습기에서 태어나는 나방·모기·파리 등의 중생, 화생이란 어디에도 의탁하지 않고 홀연히 생겨나는 제천諸天·지옥·중유中有 등의 중생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업력에 따라 화생한다. 이상의 사생중 화생의 중생이 가장 많다. 『가산불교대산림』 권12 p.447참조.

9) 惑惑 - 업業 - 고히. 우리는 미혹함으로 인하여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지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3) 윤희하게 된 이유를 물으신다면

연아달다 이야기

『농암경』 4권에 연아달다라는 인물에 대한 중요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는 실라별성에 살고 있었고 굉장히 괴상망칙한 사람이었다. 객관적으로 썩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신의 용모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부심에 걸맞은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바로 시시때때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찬탄하는 그런 종류의 취미활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자기의 얼굴과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처럼 화를 내고 도깨비라고 여겨 까닭 없이 미쳐서 달아났다. 그 곁에 지혜롭고 훌륭한 분들이 얼굴과 눈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노라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세히 거울을 들여다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결단코 듣지 않고 도깨비라 생각하며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연아달다의 친구임에 틀림없는 또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앞마당에 나가 일없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긴 시간 동안 허공을 쳐려보다가 눈병을 얻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맑은 허공에서 그는 허공꽃을 보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 하오리. 그의 눈에만 보이는 허공꽃이 허공에 결코 없음을 알 수 있는 묘약은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허공을 쳐려보는 일을 멈추고 눈병을 고칠 일이다.

연아달다의 얼굴과 눈이 없어졌다는 망상을 없애는 묘약은 또 무엇인가? 역시나 다른 방법이 없다. 미친 증상을 쉬는 것이다. 날뛰며 돌아다니지

말고 제대로 거울을 바라보아야 한다.

본인이 인정을 할 수 있든 없든 연아달다는 얼굴과 눈을 단 한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스스로는 부처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중생임을 자처하면서 괴로움 속을 헤매는 우리가 바로 연아달다며, 또 허공에는 꽃이 없다고 그것은 허상이라고 말해주지만 허공꽃의 시작점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서글픈 이야기이다.

당신이 나에게 윤희하게 된 근본이유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미쳤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으리라.¹⁰⁾ 그리고 연아달다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I. 결 론

‘아난아 그대는 왜 출가를 하였는가?’ 라고 묻고 있는 부처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우리는 『농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수없는 생각을 하며 당연한 듯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생이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시간이다.

‘눈앞의 대상이 사라질 때 생각도 사라지는데 아난아 진짜 마음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너의 생각이니 眞心은 아닐 것 같구나.’ 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한다면 눈병을 고치고 미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험이 있을 듯하다. 🍀

10) 살도음殺盜淫이 윤희의 원인이라면 더 나아가 살도음殺盜淫하게 된 근본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秋

참일 / 대교과

譬言如闇中寶無燈不可見
 佛法無人說雖慧莫能了



인공지능 로봇스님

원묘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몇 년 전 고 흥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글쎄, 다음 주쯤에 배추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더니, 학인 도감스님이 인터넷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야, 그래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년간의 개인경험보다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 더 정확한 것을 인정하는 한 장면이다.

요 근래 이삼년 사이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인공지능 로봇이 4차 산업을 주도한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작년에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겨서 바둑계를 평정했다는 소식이 광풍과 같이 휩쓸더니, 조금 지나서는 암전문의 로봇의사 왓슨이 국내병원에 취업을 하여, 암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데 몇 초가 걸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에 경이를 표할 뿐이다.

이러한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해 어안이 멍한 나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첫째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정보, 루머에 선전포고를 했다는데, 로봇에 저장한 데이터는 올바른 것인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순간적인 재해가 일어나면, 설정해놓은 데이터는 제대로 작동할까? 단순히 전기나 배터리가 꺼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지? 등의 의심과 불안감을 안고 이러한 뉴스를 무시를 한다. 둘째는 흔히 하는 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말로, 뭘지 모르지만 뒤편치는 느낌을 위안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초연한척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긴장할 일이 일어났다. 인공지능 로봇이 종교계 불교계로 진출한 것이다.

2016년 중국 베이징 근처 용천사에 로봇승려 1호, 셴얼(賢二) 스님이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키 60센티에 노란 승복을 입은 통통한 이 스님은 가슴에는 조그만 스크린을 안고 있다. 불경을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범패도 하며, 간단한 교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철학적인 질문에도 답을 한다는 것이다.

이 친근감이 넘치는 로봇스님 앞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만져도 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장면은 한 채반에 올려 있는 만두형제 같은 모습으로 친근감마저 들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또 일본에서는 2017년 8월 국제산업전시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하는 로봇승려가 선을 보였다. 이 로봇스님 페퍼(Pepper)는 손과 팔을 움직이면서 설법을 하며,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입력되어진 관음경, 반야심경, 참회문 등등의 경문을 외운다. 두 손으로는 북과 종을 번갈아 치는데 운율도 경건하고 차분하다. 새벽에 뿌리는 가랑비 소리 같다. 아! 아마도 이 시대 불자들은 로봇스님이 외워주는 장엄염불 소리를 가슴에 안고 서방정도에 가겠구나!!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 로봇에게 신뢰감이 간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과 같이 "방향은 속도이며, 속도는 방향이다. 속도와 방향은 둘이 아니다." 이 시대의 빠름, 속도감이 방향이다.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며, 성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니, 앞으로는 로봇에게 물어 보고, 그가 조언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겠지, 몇 해 전 학인 도감스님이 그랬듯이...



지혜로운 스승 부처님도 깔라마 경에서 이렇게 조언하시지 않았던가.

“깔라마인들이여, 소문, 물려받은 전통, 성전, 추론, 혹은 유명인이 말했다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깔라마인들이여,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이 유익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하며, 실행하면 유익하고 행복하게 된다’ 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은 불법을 전달하기 위해 기술과 함께 가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구송口誦이었던 경전들이 나무 · 돌 · 종이에 문자로 쓰여졌고, 집대성하여 대장경으로 만들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장경이 전산화, 디지털화로 바뀌어서 시공을 초월하여 불법에 쉽게 접근하게 했다.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스님이 지혜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

그들은 왜 서천으로 갔는가 『서유기』를 읽고 ②

우연 / 사집과

목차

I. 머리말

II. 『서유기』 이야기의 구조

- 1) 창작배경
- 2) 이야기 구조

III.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 1) 삼장법사
- 2) 손오공
- 3) 저팔계
- 4) 사오정

IV. 모험으로 상징된 수행의 과정

V. 맺는 말

IV. 모험으로 상징된 수행의 과정

『서유기』에 등장하는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장애물들은 그 자체의 험준함보다 거기에 등지를 틀고 살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서역행을 방해하는 요괴들의 터전이라는 점이 더 강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장법사 일행은 높고 험한 산을 넘거나 깊고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요괴를 굴복시키는 데 더 골몰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요괴들이 단순히 지리적 험난함을 상징하기 위한 장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장법사의 서역행이 초월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요괴들은 안팎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심마心魔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음보살이 의도적으로 안배해놓은 경우가 많다. 이는 ‘도와 덕이 높으면 마귀의 시험도 높으니 참선의 비결은 본래 고요한 것이나 고요함 속에서 요마가 생겨난다’는 이치를 깨닫게 한다.

결국 요괴들은 실패가 예정된 도발을 통해 삼장법사 일행을 시험하거나 좀더 성실한 정진精進을 독촉하는 조교助敎들에 지나지 않는다. 삼장법사 일행은 맞닥뜨리는 요괴를 통해 서로간의 잠재적 갈등을 다시 표면화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조화를 이룬 ‘단丹’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서역을 향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중생의 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승 불법을 얻어오는 것이 변혁의 완성이라면 ‘서역’이란 민중의 자유와 권익이 보장되는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석가여래의 명을 받은 아난阿難과 가섭迦葉은 삼장법사가 마땅한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35부 15,105권에 해당하는 ‘글자 없는 경전(無字經)’을 내주었다. 결국 연등고불燃燈古佛의 도움으로 진상을 알게 된 삼장법사 일행에게 35부 5,048권의 ‘글자 있는 경전 유자경有字經’을 내준다. 불평을 터뜨리는 손오공에게 석가여래는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옹호하면서, 어리석고 몽매하

여 깨닫지 못하는 동방의 백성들에게는 글자 없는 경전이면 족하다고 말한다. 경전이란 석가여래의 말처럼 유교와 도교 불교 '삼교三敎'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심오한 책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글자에 연연하면 경전의 내용을 협소한 불교의 테두리 안으로 한정시켜 이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글자 없는 경전은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적어야 할 백지이므로,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열린 마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만류귀종萬流歸宗'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진지한 사유는 경전의 제목들에서 암시되는 공통의 진리, 즉 '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그런 사유야말로 진정한 종교 철학의 본색本色임을 강조하였다.

이야기 마지막에 삼장법사 일행이 물에 젖은 경전을 말리다가 『불본행경佛本行徑』 몇 권이 바위에 들러붙어 끝부분이 찢겨 나가버려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는 삼장법사에게 손오공이 “하늘과 땅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 경전은 원래 온전했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붙어 찢긴 것입니다. 바로 불완전한 것에 대응하는 오묘한 뜻이 깃든 일이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위로한다. 서천이라는 극락세계가 아닌 하늘과 땅의 위상조차 불안한 사바세계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채워진 경전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강을 건너는 순간 버려야 할 뗏목(登岸捨)이 된다. 모험이 끝나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 삼장법사 일행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수행을 위한 모험을 떠나야 한다.

서역행으로 암시되는 '말할 수 없이 길고 힘겨운' 한 차례의 수행을 거쳤지만 그들에게는 인간 세상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 겪어야 할 새로운 수행—석가여래와 같은 수준—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이제 막 두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는 것이다.

고난을 끝낸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각각 전단공덕불 檀檀功德佛과 투전승불 鬪戰勝佛이라는 부처가 되고, 아직 어리석은 마음과 색성색情을 씻지 못한 저팔계는 정단사자淨壇使者, 사오정은 금신나한, 백마는 팔부천룡八部天龍으로 그 지위가 올라간다. 이는 '누구나 도를 깨달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사상을 일깨워준다.

V. 맺는 말

『서유기』는 기본적으로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갔다 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의 제도와 안녕을 추구하는 대승 불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도가의 수련 방법을 암시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불교와 도가의 해탈이나 '우화등선羽化登仙'의 논리를 일체의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들의 위선적 측면을 폭로하기도 한다. 작품에서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모든 종교의 특성을 포괄하기도 한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종교 사상인 유가와 불가, 도가를 합



그림 / 사교과 도원하

일습—시킨 새로운 사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설명이 아니다. 나아가 이 작품은 이런 종교적 성격에서 벗어나 부패한 봉건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각성을 통해 온갖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에 이를 수 있다는 계몽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고도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동양의 인문학에 대한 사유의 본질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 훌륭한 촉매제이다. 『서유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다. 그보다는 상징으로 치장된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해석의 깊이를 지닌 철학, 인간학이다. 또한 유儒·불佛·선仙의 ‘삼교합일三敎合一’의 독특한 세계관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소설에는 넓은 의미에서 우주관 무엇이고, 그 안에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상은 어떠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이 깔려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인식 작용이 있어서 존재하며, 모든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생겨난다.

그러면 수행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연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 그리고 그 중간 상태인 무기無記의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인자가 아식我識을 통과하여 나타난 것이 나(我)의 인격이다. 즉 선을 나타내면 선인이 되고, 악을 나타내면 악인이 된다. 하지만 선인과 악인은 보통 사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부처의 경지란 모든 선악을 초월하는 진여眞如의 경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악의 인자를 없애야만 진여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선종에서 말하는 돈오가 장식藏識단계에서 갑자기 이 씨앗을 변화시켜 부처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데 반해, 유식론에서는 불교도들의 점진적인 수양에 의해서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악의 인자를 점점 없애가다 보면 우리 속에 선의 인자만 남게 되고, 다시 이 선의 인자까지 없애나가다 보면 마침내 부처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 이 다음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대승불법을 배우기 위해 인도 대신 중국을 찾게 되었으니, 이는 외래문화를 받아들인 쪽도 얼마든지 더 우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

〈주에 대한 해석〉

1. 하서회랑河西回廊 : 난주에서 무위를 거쳐 둔황에 이르기까지 서역으로 향하는 복도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은 하서주랑 또는 하서회랑이라 불렀다.
2. 내단內丹 : 수련을 통하여 오래 묵은 기운을 내뿜고 신선한 기운을 들이마시는 방법을 말하는 도가道家에서의 양생 용어이다.
3. 오행산五行山 : 다섯 개로 이루어진 봉우리이다. 동쪽은 목봉木峰, 북쪽은 수봉水峰, 토봉土峰, 금봉金峰, 화봉火峰이다. 즉 여래의 다섯 손가락인 토, 금, 목, 수, 화를 뜻한다.
4. 만류귀종萬流歸宗 : 불교에서 일컫는 모든 흐름은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로, 무학의 종류는 다르되 절정이 되면 하나의 형태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5. 불본행경佛本行經 : 총 7권 31품으로 구성된 이 경은 부처님의 생애를 서사시적 형식에 담아 찬송한 불전본생담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6. 우화등선羽化登仙 : 우화羽化는 원래 번데기가 날개 달린 나방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교 사상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감을 뜻하는 말이다.
7. 장식藏識 : 八識의 하나, 곧 第八阿賴耶識을 가리킨다. 제8識은 能藏·所藏·執藏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여 玄奘은 藏識이라 번역했고, 眞諦三藏은 제8識은 중생의 根本心識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無沒識이라 했다. 아뢰야를 藏이라고 하며 일체의 종자를 含藏했다는 뜻으로부터 藏識이라 하고 性宗에서는 眞妄和合의 識이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

William Stafford, 서광 옮김

당신이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다.
그 실은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한다.
당신은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그 실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상처를 입거나 죽는다.
그리고 당신은 고통 받고 늙어간다.
시간이 하는 일을 당신은 어떻게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실을 절대 놓지 말라. 🍄

이 시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아련하게 묻어나는 아픔과 사랑의 흔적들을 추억하게 하면서 잠시 바쁜 일상으로부터 휴식하게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 가까이에 와 있다고 상상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낀 순간들을 떠올려봅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위의 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한 곳에 늘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했던 그 무언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지광 / 호주 정혜사

먼저 운문사에서 저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운문사를 거닐며 참 편안하고 세련된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39년 전에 행자생활을 했을 때와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의 은사스님이신 회주 명성 스님께 큰 존경심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운문사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스님의 창의적인 지혜는 학인스님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유익하도록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운문사를 졸업한 앞선 선배 스님들은 회주 스님의 일을 협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스님과 노스님들의 노고로 지금의 한국 비구니계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여러분들 대부분은 세속에서의 편안한 삶과 좋은 직장, 부와 명예를 뒤로 하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운문사로 오기까지의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 대중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레를 끌며 달리고 공양간에서 급하게 나와 예불하러 법당을 향하는 이런 모든 모습이 '나' 라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았고, 아주 인상 깊게 생각되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문사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 느낍니다.

새롭게 지어진 '약야계' 다실에서 갖 내린 향이 풍부한 커피를 마시며 최근의 변화에 대해 반추해 보았습니다. 우선 왜 점점 스님의 삶을 원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과 소승불교의 위빠사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한 한국 간화선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구산 스님의 지도 하에서 다른 서양권 스님들과 함께 송광사에 서 지냈었던 저는 정식으로 운문사를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행자생활과 해제 때에 방문했던 일을 두려움 섞인

지광 스님은 호주에서 한국으로 출가하신 외국인 스님입니다. 명성 회주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간화선 수행으로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였습니다. 현재는 호주 정혜사에 머물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한국불교 수련회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운문사를 다녀가신 스님께서 학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장문의 편지로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번역하여 운문지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주)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야 제 은사스님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처럼 강원의 멋진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화엄반에 앉아서 화엄경을 청강하였고 당시 학장이셨던 명성 스님과 다른 스님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한글과 한자로 된 다양한 책을 공부하였고, 서에도 배웠습니다. 운문사와 제 도반들을 떠올리면 제 마음은 항상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의 소중한 시간이 앞으로의 스님생활에 밝고 성취적인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칸타팔로라는 영국 비구스님의 안내로 저는 1977년 초반에 조각을 하고 위빠사나와 여러 명상센터를 방문하러 처음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의 공동체로 하루 종일 건물을 짓고, 요리하고, 밥을 가꾸었습니다. 오후 12시가 지나서는 먹지 않고 오후에는 경전공부를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명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산 스님의 책 『9개의 산』을 읽게 되었고 제 화두가 무르익었을 때, 제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졌습니다. 1979년 중반, 구산 스님의 책을 통한 것 외에는 전혀 모른 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송광사의 마을에 밤늦게 도착하여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뜨거운 방바닥과 나무토막배게는 날이 밝자마자 저를 급히 절로 향하게 했습니다. 비로소 송광사의 문을 보고서 평온함이 물밀 듯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한 여행 후에 마침내 집으로 온 듯했습니다. 곧바로 구산 스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통역의 도움으로 인사드리고 차를 마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상한 질문을 연이어 하셨습니다. ‘강한 마음이지만 약한 몸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체 없이 대답하자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무엇인가를 놓친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마음이지만 약한 몸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빨리 대답을 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웃으시는 스님께서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홀연히 깨어 있는 마음에 강한 몸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와 그 방의 고요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대답들이 맞았던 걸까? 내가 불편해함을 아셨을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후, 서서히 끄덕이시며 또렷이 쏘아보시고는 갑자기 웅장한 목소리를 내지르셨습니다. ‘하!’ 이것이 온전히 깨어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란 네 몸도 느낌도 생각도 마음도 아닌 것을... 이게 뭐가? ‘이것’이란 뭐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한 멍멍함에 내가 진짜 감정이라고 믿을 수 있는 깊은 요동이 친밀하고 미묘하고 깊게 밀려왔습니다.

은사스님을 만나기 몇 년 전, 명상을 하면서 조각가였을 때 느꼈던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의심은 점점 강렬해졌고, 조건따라 행복하고, 불행하고, 알고, 모르고, 행동하고, 안 하고, 말하고, 걷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주체자가 없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두는 어떠한 이야기나 해석 없이 경험이 일어나는 대로 완전히 경험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잔재들이 벗겨지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

- 다음호에 계속 -



미황사 템플스테이가 남긴 여운

손미숙

올여름 해남 미황사에서 하는 수행형 템플스테이 <참사람의 향기 - 참나를 찾아가는 8일간의 참선집중수행>에 참가했다. 원래 불교를 좋아했었고, 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산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청산에서 머루랑 다래 먹으며 청빈하게 살아가는 산승의 모습은 오래 전부터 나에게 늘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긴 외국생활 중에는 공간적인 거리로 인해, 귀국하고 나서는 일상의 세파에 떠밀려 가느라 절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다 올봄 우연히 미황사 금강 스님의 신간 『물 흐르고 꽃은 피네』를 읽게 되었다. 수류화개라는 말은 법정 스님께서 좋아하시던 말이고, 미황사가 있는 해남은 법정 스님이 유년기를 보낸 고향 우수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1990년대 초 법정 스님의 어린 애독자로서 송광사 불일암에 가끔 가곤

했는데, 스님과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1996년 4월 초순이었다. 독일유학을 앞두고 출국하기 전 불일암에 작별인사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날이 그 암자의 가족회의가 있는 날이라 강원도로 떠난 스님이 내려오셨던 것이다. 스님과 함께 했던 불일암에서의 맑고 투명했던 날들은 내 가슴 속에 따뜻하고도 아릿한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스님은 가셨지만 그곳의 후박나무와 모란과 천리향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스님이 맺어준 친구들이다. 이러한 사적인 배경이 - 물론 체계적인 지도하에서 참선을 해보고 싶은 강한 내적인 욕구도 있었지만- 땃글마을 미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진리의 산, 달마산 미황사에서의 7박 8일 수행은 시한부 단기출가라고 해도 될 만큼 새로운 삶의 방식의 체험이었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모으는 온전히 깨어 있는 시간이었다. 예불, 다도, 좌선, 발우공양, 차수, 어느 것도 수행 아닌 것이 없었다. 또 매일 오후에 있었던, 그 이름도 불멸인 다이아몬드 금강 스님의 법문과 육조단경 강의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어떤 철학서나 역사서보다도 심도 있고 흥미로웠으며, 마음공부를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어 주었다. 이 글에서는 수행 기간 중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특히 나에게 긴 여운을 남기고 지금도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두 가지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참선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강 스님이 자주 강조하신 '수처작주'에 관한 것이다.

참선 - 나와 정면으로 대면한 시간

먼저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고요함, 선정, 조화, 내적 완성 등을 뜻하는 선禪은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단호하고 강한 힘이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선불교를 바닥에 정좌해서 하는 명상과 바로 직결시키기도 한다. 미황사에서 한 참선은 간화선이었으며, 받은 화두는 '이 뭘고?' 였다. 첫 3일간은 좌선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작업, 미황사식 표현으로는 습의와 마음 청정, 마음집중 수행을 하고, 4일째 되던 날부터는 화두를 들고 직관수행을 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참선을 처음 하는 초보자였으며, 간화선 수행은 지금까지의 나의 사유방식,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 뭘고라는 화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이며,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기도 하다. 오로지 이성, 즉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이 질문에 답할 능력이 있다. 이 물음은 또한 지금까지 인류의 많은 종교와 철학이 몰두했던 문제이며, 그래서 각 종교와 철학과 개별 학문 분야는 자신들이 찾아낸 각각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화선에서 든 화두는 그 어떤 경전이나 위대한 비판 철학서에도 의존하지 않고, 말하자면 남의 답이 아니라, 좌복 위에 허리를 꼴꼴이 하고 앉아 오로지 네 사유의 추궁하는 힘으로 (칸트적으로는 너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내서) 혹은 사유조차 끊어지는 그 끝까지 가서 너 자신의 답을 스스로 구하라는 것이다. 질문의 대상에 대한 분석도 종합도 아니고, 연역도 귀납적 추리도 아닌, 완전한 몰입을 통해 질문의 근원으로 직접 파고들어가는 것이다.

이 뭣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준엄하고 시급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화두를 주신 금강 스님의 동기부여와 결의에 찬 촉구엔 힘입어) 처음에는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덤벼들어 눈이 튀어나올 것도 같았고, 별로 든 것 없는 머리까지 무겁기도 했다; 또 때로는 선정으로 질문에 들어가는 한없는 평온을 누렸으며, 그러나 방해받는 것 없이 고요하게 좌정하고 있는 안락함에 기대어 얼마나 자주 안일한 상념, 망상을 하였던가. 좌선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다리도 문제였지만, 오히려 나를 더 놀라게 한 건 질문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하는 부족한 집중력, 그리고 나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면했을 때 여지없이 드러난 부실한 내 자아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참선이 나에게 준 가슴 벅찬 환희는, 이 뭣고라고 묻는 이 존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주체라는 신념, 바로 자신에 대한 완전한 긍정과 확신이었다. 이것은 자성自性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며, 자유의지를 지닌 모든 인간이 자기 이성의 새로운 빛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든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 있고, 대강대강이 아니라 확고한 중심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참선은 (이어서 이야기할) 늘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수처자주와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



미황사 템플스테이 참선수행

수처작주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임제록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은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서 있는 곳 모두가 참되다”는 뜻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항상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라는 매우 자명해 보이는 이 말은 그러나 설명이 필요하고, 또 지혜를 전제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듯 삶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리나 위탁이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 수 없고, 나 또한 나 아닌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다. 각자는 원래부터 자기 삶의 주체이며, 인간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수처작주를 강조하는 것은 또 그만큼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개개인의 자율성이 부정되고 국권과 주체성을 상실했던 암울한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 수처작주하라는 이 (정언)명령은 그래서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주인은 어둠과 무명에서 벗어나 (칸트식으로 표현하자면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기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이 뺏고’ 라고 물을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 그리고 피상이나 거죽이 아닌 본질과 중심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자기존재를 말한다. 이러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은 마법의 주문처럼 그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실제 행동을 통해 직접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가 드러나며, 지혜란 바로 현실의 당면 문제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중요한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내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근대의 많은 영욕의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다. 꼭 100년 전인 1917년에 태어나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시인 윤동주는 수처작주하는 참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간 것일까.

수처작주하는 삶은 한 번의 인식으로 완성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항구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이 정진精進에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위없는 최고의 맑은 주문이 있다: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사는 이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자기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리라.

1200년의 세월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미황사에서 참선집중수행은 잇고 있었던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고귀한 것을 다시 일깨워준 고맙고도 기이한 시간이었다. 마하반야바라밀! 🍎



손미숙

독일 트리어대학교 법학박사. 오랫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에서 동아시아법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통번역일을 하고 있다.

아직도 운문사 화엄반은 청도군수보다 좋습니다

도우 / 대교과



하늘과 구름, 바람, 그리고 햇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 어느 것 하나 참 좋지 않은 것 없는 정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제게 이렇게 참 좋은 요즘이 운문사 강원의 치문, 사집, 사교반의 학인 스님들에게도 참 좋은 요즘일까 생각해봅니다. 졸업을 이제 불과 100여 일 정도 앞두고 뒤를 돌아보며 뭔가 후배스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혹은 알려주어야 편안해질 것 같은 노파심 비슷한 기우에 펜을 들어봅니다.

낮설은 강원 생활의 시작, 정량 한번 다녀와도 배교파지는 이 넓은 도량에 생전 한번도 해보지 않은 군대적인 단체생활의 습의, 행자시절부터 찌들어 있던 오래된 만성피로에 단 한번도 풀지 않고 넘긴 적 없는 치문 수업은 지금도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겨두고 깊이깊이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매일 졸면서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치문반 스님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어려운 한자에 고단한 울력에 피곤한 습의교육에 지치고 힘들어도 치문시간을 즐겨보도록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음미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하루 30분이라도 가져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 주십시오

지금은 논도 밭도 모두 없어지고 텃밭 가꾸는 정도의 농사일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선배스님들이 큰밭에 있는 것보다 들로 밭으로 나가는 것이 가슴이 터지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말해 주지만, 어느 것이 풀이고 어느 것이 채소 싹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우리 세대에겐 먹는 일이 나 즐겁지 가꾸는 일은 그저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하는 울력일 뿐이었습니다. 사집반 스님들, 지금 이때쯤엔 김장용으로 키우는 배추와 무 정도만이 남아 있어서 “저것들만 뽑아내면 이제 고생 끝이다” 하고 버티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게 너무나 좋은 이 가을 맑은 바람과 햇빛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사집반 스님들에게도 똑같이 비추어주고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을이 다 끝나기 전에 그 바람과 햇빛을 즐기며 풍요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고단함과 짜증은 밭 한켠에 묻어두시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금강경과 대승기신론을 배운다는 기대감으로 행복한 사교반이 됩니다.

그러나 엄마반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꺼리 울력과 이쯤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개인적인 성향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공부 좀 할라치면 “시장차 왔어요!” “회의합니다!” 매일같이 후원

에 나가 끼리를 준비하는 울력을 1년 내내 하다보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렇게 지쳐갈 때쯤 죽비교체를 하고 졸업식이라는 마지막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사경도 하고 책도 좀 읽고 1년 내내 화염경만을 공부할 수 있는 화염반이 됩니다. 무엇을 담은 가슴을 가지고 화염반까지 올라왔을까요? 생활의 적응에 매달려 너무 혈떡이며 살아온 건 아닐까? 시간이 이렇듯 쏘아놓은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담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허망되어 생활에만 혈떡이며 속 빈 강정 같은 가슴을 안고 화염반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과” … 하루 일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후배스님들! 오늘 하루 안에 꼭 해야 하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내준 숙제 말입니다. 이곳에서의 정해진 일정이외의 나만의 일정 그 “일과”가 있으신가요?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정신없이 울력하고 잠자고 놀다 개학이 되어 운문사로 돌아오면 마음 한 편이 항상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운문사에서만큼이나 바쁘게 지내다 왔는데도 왜 그리 지난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텅 빈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슬퍼지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혼자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를 정해놓고 무조건 지키겠다고 부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몸은 조금 더 힘들어졌고 조금 더 바빠졌지만 일과를 하면서는 한철이 지나고 방학을 보내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주어진 소임을 살고 일과를 지키는 것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마음이 어떻구나라고 느낄 틈조차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조금은 수행자인거 같이 느껴졌고,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후배스님들!

무엇이든지, 경전을 독송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절기도를 하든지 부처님께 약속을 하고 발원을 하고 일과를 시작해보십시오. 마음이 굳건하면 바쁘고 힘들어도 그 일과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부처님께서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의 결과는 각자의 근기대로 다르겠지만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되는 공통된 결과를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이 수행자라는 사실을 더 풍요롭게 느낄 것입니다.

이제 졸업을 100여 일 앞둔 이즈음에는 앞으로 어떤 대중생활을 하게 돼도 무던히 할 수 있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준비도 되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은 여법한 수행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강원생활을 인내하고 살아온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별의별 꼴을 다보고도 인내해오신 교수스님들의 목적이며 지나온 시간동안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은사스님의 목적이기도 하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 이 강원외의 모든 어른스님들 교수스님들 그리고 은사스님께 구배합장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화염반이 느끼고 즐기는 이 계절의 청량함과 달콤함을 치문, 사집, 사교반의 후배스님들은 느낄 수 없겠지만 이 짧은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곧 후배스님들에게도 스쳐갈 것입니다. 그냥 이 속에 파묻혀 살아도 스쳐 가겠지만 자신만의 일과를 가지고 깨어 있으려 조금만 더 노력하며 산다면 더 귀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사교반 시절 어느 때인가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많은 것이 힘들어 있을 때 부처님 말씀처럼 저를 위로 해주었던 교수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과 몸이 힘들고 지칠 때 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다시, 화염의 마지막 맑은 바람 맑은 햇빛을 안을 후배스님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

불빛따라 한 생각

불수 / 사교과

넓고 깊은 바다 같은 가을하늘이다. 운문사에는 365일 꺼지지 않은 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푸정¹⁾의 촛불이다. 푸정은 요즘 찾아보기 드문 곳으로 지난여름, 힘든 가뭄의 시기에 수세식 화장실을 대신해 활약한 바 있다. 푸정의 촛불은 푸짐한 냄새를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혹여나 발을 헛디딜까봐 주변을 밝혀주고자 쓰다 남은 초를 이용해서 언제나 촛불이 켜져 있다.

덥고 습한 여름 동안 촛불 들레의 광활한 파라편 호수에는 익사해 잠들어 있는 하루살이, 파리, 날파리, 나방 등 벌레들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숫자 또한 참 많기도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보며 항을 피우고²⁾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무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가을의 청량한 바람이 불면서 파라편 호수에 빠진 벌레의 수가 줄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이 벌레들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 있어 여기 촛불의 불빛과 이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 불빛에 빠질 정도면 이 불빛은 과연 무엇일까?

잠들어 있는 지는 말이 없고, 그들의 언어를 몰라 물어 볼 수도 없다.

파리의 식견³⁾으로 이 공간을 둘러보게 된다. 습하고 구린내 나는 이곳은, 파리에게는 적절한 조명과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고 나가고 싶지 않은 안락한 공간일 것이다. 죽음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불꽃으로의 투척은 최상의 행복을 향한 몸부림은 아닐까?

그들의 무모한 몸부림이 가없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내 삶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맛있는 공양이 나오면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 행복은 행복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집착으로 이어진다. 식탐에 휘둘려 과식을 하고, 용량이 초과되니 몸은 나른해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달콤한 낮잠은 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리화를 하며 휴식을 만끽한다. 도반들과의 즐거운 대화에 기분은 항상 하염없이 맑음이다.

저녁 방선을 하고 촛불에 빠진 벌레들을 보며 잊고 있던 두려움이 밀려온다. 일상의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내가 있다. 이렇게 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데, 좀 적게 가지고, 적게 먹고, 욕심을 버리고 살고자 발심한 초심자였는데, 지금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먹을 것에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불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뛰어드는 나방이나 욕락(欲樂³)에 만족하며 사는 내 모습이나 어리석기는 매 한가지다.

“신심(信心)으로써 욕락(欲樂)을 버리고 일찍 발심(發心)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孤高)하게 걸어서 가라.”

-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계 제일로 알려진 우바리 존자의 계송이다. -



그림 / 사교과 도원²

오욕락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며 되짚어본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알아차림을 한다. 식탐의 순가락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있지만 그 순간 욕진경계에 현혹되어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래서 매순간 먹는 성품, 보는 성품, 말하는 성품, 그 본연의 자리 상주진심의 소소영영(昭昭靈靈), 부중생부중멸(不生不滅), 명부득상부득(名不得相不得) 등의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원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들이 근본 자리, 참성품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다.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고 망각하는 것이 많겠지만, 꾸준히 간절히 하다보면 ‘빛물이 바위를 뚫듯’ 우리 수행도 익어갈 것이다. 우리가 정진 여일하다면 본연의 자리가 드러나 산해진미의 맛을 떠나 부처님께서 맛 중에 으뜸이라고 설했던 법희선열(法喜禪悅⁴)의 맛을 볼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열반의 길(최상의 행복, 니르바나)로 이를 수 있도록 근기에 맞게 팔만 사천법문을 설해 주셨다. 물러남이 없는 마음과 성성(惺惺)한 알아차림, 적정(適定)한 선정(禪定)의 수행을 이어 간다면 다시는 불꽃에 뛰어들어 부질없이 또 윤회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

1) 재래식 화장실.

2) 향 또한 암모니아 냄새의 경감을 위해 비치돼 있음.

3) 재물(財欲), 성욕(色欲), 음식욕(食欲), 명예욕(名欲), 수면욕(睡眠欲)의 즐거움.

4) 깊고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환희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상태. 진리의 기쁨과 참선의 즐거움

公案과 話頭

로운 / 사집과



그림 / 사교과 도원하

치문반을 지나 사집반이 되기 전, 노스님께서 “서장 배우다가 의심 일으켜서 선방 간다고 하지 말고, 강원 생활 열심히 해라. 우리 때는 그런 사람들 많았지만 무슨 일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라고 간곡히 부탁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스님의 기우에 불과했다. 나는 여전히 漢字 새김에 급급해 그 깊은 뜻을 감히 헤아리기도 힘든 현실은 강원을 박차고 나와 선방을 갈까 걱정하신 노스님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강원로 가면 공부는 해도 시험은 없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빛나갔지만, 시험을 통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이 편지가운데 내가 의문이 드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若棄了話頭하고
却去別文字上起疑어나
經教上起疑어나
古人公案上起疑어나
日用塵勞中起疑하며
皆是邪魔眷屬이니라.

만약 화두를 버리고
도리어 따로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들의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진로 중에서 의심을 일으키면
그것은 모두가 샅된 마군의 권속이니라.

- 여사인이 거인에게 답한 내용 中 -

위 내용 중 “고인들의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라는 말이 있다. 즉 “자기 화두를 의심할 것이지 고인의 공안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안과 화두는 다르다는 말이다. 아직 초학자인 나에게 공안과 화두는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졌고, 1700 공안, 1700 화두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졌다. 이 편지에서는 그 공안이 샅된 마군의 권속이라고 했다. 대혜종고께서 공안과 화두를 달리 보는 이유를 살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보았다.¹⁾ 그동안 학계에서나 수행자들 사이에서 간화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안과 화두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조계종이 발간한 간화선 지침서인 『조계종 수행의 길 - 간화선』에서도 ‘공안과 화두는 모두 같은 뜻’이라며 ‘공안을 참구하는 조사선 속에 이미 화두라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공안과 화두는 동일한 의미임을 강조해 왔다.²⁾ 먼저 공안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가의 공문서, 법령, 법원의 판례 등을 뜻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한 법

령, 공문서는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참선수행자도 공안을 참구해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안이라고 한 것이다.³⁾

다시 말해 선사들은 그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와 행동을 남기고 선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 깨달음은 그것에 지극한 관심을 가진 동료들과 후대들에 의해서 계속 점검되고 각 개인의 통찰이 투영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의문구조를 가진 선의 명제, 즉 공안으로 확립되었던 것이다.⁴⁾

공안은 당대에 옛 선사들이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흔히 사용했던 선문답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사건 사례에 불과하지만, 화두는 공안 가운데 핵심이 되는 언구를 참구하는 것으로 비록 공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공부법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

대혜종교의 스승인 원오극근의 경우 『벽암록』과 『원오어록』에서 나타나는 공안 개념은 다소 상이하다. 『벽암록』은 이 공안을 ‘옛 조사의 가르침, 선문답’으로 정의하고 공부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원오어록』은 공안의 본질을 ‘그 자체 진리의 현현(現成公案)’으로 밝히고 있다. 두 책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벽암록』이 공안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면, 『원오어록』은 직접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며 두 책의 공안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 “공안은 현성공안으로 진리 자체를 보인 것이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결택해 수행의 길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오극근의 공안선을 화두수행법으로 체계화시킨 이는 그의 제자인 대혜종교다. 그는 “공안은 과거의 단순한 기록에 불과하며, 진정 필요한 것은 절박한 자기문제로서의 화두”라고 강조하고, “화두의 본질은 의심이며, 화두에서 의심을 일으키라”고 말했다.

즉 공안집에 수록된 공안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저기에 놓인 것이지만 화두는 내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요청하는 절박한 실존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의 간화선을 확립시킨 대혜종교는 공안을 ‘삿된 마귀’, ‘불태울 쓰레기’, ‘수행자의 안목을 장애하는 독’으로 묘사하면서 화두에서 의심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⁶⁾

다시 말해 공안이란 역대 스님들이 스승으로부터 그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질문을 받아 참구했던 것이다. 즉 ‘이와 같이 화두를 선택하고 공부했다’는 하나의 선택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화두는 수행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의문을 찾아내어 그에 상응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즉 화두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공안은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으로써 교육자료 혹은 수행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다.⁷⁾

위의 자료를 통해 공안과 화두에 대해 고민했던 나의 의문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

1) 2005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 열린 한국 선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의 발표내용을 참고
2) 법보신문 2005년.9.20 인경 스님 “공안과 화두는 엄격히 다르다” 참고
3) 법보신문 2012년.8.20 윤창화의 선가산책 公案禪2 참고
4) 선 이야기. 저자 임원웅|여래 | 2004.05.20.
5) 법보신문 2005년.9.20 인경 스님 “공안과 화두는 엄격히 다르다” 참고
6) 법보신문 2005.9.20. 인경 스님 “공안과 화두는 엄격히 다르다” 참고
7) 법보신문 2005년.9.20. 인경 스님 “공안과 화두는 엄격히 다르다” 참고

福은 德에서
나오는 것이지
罪의 有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선아 / 사미니과



그림 / 사교과 도원下

중생의 마음과 생존 상태를 業에 관련하여 세 단계로 나눈 것을 三界 또는 三有라고 한다. 탐욕의 세계인 欲界에는 十四有가 있고, 형상에 얽매여 있는 세계인 色界에는 七有, 순수한 禪定의 세계인 無色界에는 四有가 있어 이를 三界二十五有라고 한다. 대승의 반야 쏘사상과 초기불전 「근본유부 비나야」에서는 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百劫積集罪 一念頓蕩盡 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罪亡心滅兩俱空 是則名為眞懺悔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마저 없어지면 죄도 함께 사라지네
모든 죄가 다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사라지면 이것이 곧 진실한 참회라네
- 대승의 반야 쏘사상

假令經百劫 所作業不亡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

가령 백겁이 지나도 지은바 업은 사라지지 않아서 인연이 만날 때 과보를 스스로 받는다.

- 초기불전 「근본유부 비나야」

출가 전 BTN에서 방영하는 60부작 '드라마 붓다' 를 본 적이 있다. 부처님의 일대기와 대기설법을 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감명을 받고,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아 출가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감흥이 왔던 내용은 데바닷타가 나오는 장면이었다. 부처님을

해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그의 '노력' 때문이었다. 승가를 분열시키고 이탈시켰으며, 언덕 위의 거대한 바위를 밀어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고, 부처님께 '승가를 이끌 지도자가 되리라'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도 수행 정진한 데바닷타의 모습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특히 그런 데바닷타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비뚤어진 욕구에 온화한 모습과 목소리로 '데바닷타'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처님이 너무 좋았다.

데바닷타를 보면 의지가 대단하다. 목적이 부처님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좋은 목표를 향해 있었다면 무엇을 했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어쩌면 나의 전생이, 전생의 근기가 아난다, 목련, 마하가섭이 아니라 데바닷타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순행보살이 아니라 역행보살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전히 역행보살이기를 자처하며 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따스하게 '데바닷타'라고 이름 불러줄 수 있는 부처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 전생이 좋은 사람, 선지식, 바른 수행자가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을 시샘하고 승가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을 부렸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보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연관 짓게 되었다. 지금의 내가 그리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죄가 있어 업이 있어 선근이 있어 業을 짓고 果報를 받는다고 그것이 因果應報라고 생각한다. 데바닷타를 보며 한참 내 業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과 같은 大菩薩께 무슨 罪와 業이 있어 데바닷타와 같은 惡人에게 살해 의혹을 받았겠으며 많은 이들의 시샘과 질투, 비방을 받았을 것인가.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처님의 발우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수행을 위해 떠나겠다고 가버린 시자를 만났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罪도 業도 없다면, 오직 福만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 해주신 말이다.

“名將이 있는데 용맹한 장군 맹장猛將은 지혜로운 장군 지장智將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智將은 덕이 있는 덕장德將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德將은 복이 있는 복장福將을 이기지 못한다. 복장福將이 되고자 한다면 德을 쌓으라.”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아가던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스스로를 돌아보던 때 '왜 나에게는'이라는 질문을 했던 때 들었던 말이다.

대승의 心若滅時罪亦亡, 소승의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처럼 罪가 '있다' '없다' 의 어느 한 면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만들어 가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처님께서서는 원력으로 알음알이로 그리고 業에 치우치지 않은 德으로써 모든 인연을 적제적소에, 환경을 적제적소에 만드셨다.

罪를 짓지 않기 위해 福을 짓기보다는 福을 짓기 위해 德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나에게는 나를 돌아볼 힘도 미약해 여전히 삶의 속박에 叩달려 三界二十五有를 넘나들며 살고 있지만 내가 해야 하는 수행은,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는 解脫이나 正等覺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

육바라밀에 대한 단상

지우/사교과



님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 깨나 쉼 사이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결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와 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인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바라밀을 가르치려고
겉짓 애인의 몸을 나투신 부처님이시라고…….

- 춘원 이광수 '애인(육바라밀)' -

안녕하십니까. 진부한 표현이지만 청자 빛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더없이 높고 푸르른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고추는 빼알갈게 별 속에 익어가고, 여름의 땀별을 인내한 감은 주홍빛으로 달디단 꿈을 꾸고 있는 계절.

때로는 감성적이고 싶은 대중스님들께 문득 이 시를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의 시는 춘원 이광수의 작품인 「에인(육바라밀)」이라는 시로, 많은 이들에게 학창시절 국어교과서에서 만나, 시험에 나올만한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본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인지 저는 그 시절 이 시를 읽고 특별하게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속에 잠재된 불성이 이 시를 읽고 어렵פות하게 대승적 실천사상이 무엇인지를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시절 첫사랑의 풋풋한 마음으로 시 속의 화자의 마음에 완벽하게 동화되었던 것일까요? 10대 시절 어쩐지 무작정 끝렸던 이 시가 출가수행자가 된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육바라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사고해를 건너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실천 덕목입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은 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완성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도 완성시켜 정토淨土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불교를 잘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배웠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그것이 비록 한정된 대상에 의한 것이라도-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쥐고 수행자로서 살겠다고 공부와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으면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대승보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스스로는 얼마나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속의 화자가 수행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소박하면서도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 사는 이들처럼 절절한 연애담 속의 그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길을 향하고 한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벗입니다. 24시간을 붙어 지내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으로 인해 시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마음을 돌이켜 수행의 도구로 삼아 배움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는 순간들이 되길 발원합니다.

운문사에 입방해서 세 번째 맞는 가을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들이, 저에게 바라밀을 가르쳐주려고 도반의 몸을 나뉜 부처님이시라고……. 4



식발염의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 포항 백련선원 덕총 스님 탐방기 -

동호/사교과

54회, 55회 졸업예정의 학인들이 운문사 4회 졸업하신 선배 덕총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포항 백련선원으로 향했다. 강산이 몇 번은 바뀌었을 50년의 시간. 긴 시간만큼이나 만남이 설레고 긴장되어 온다. 막상 대면한 선배님은 생각보다 정정하다. 맑은 눈은 시간의 무게보다는 오히려 깊이가 느껴진다. 잘생긴 밤을 골라 삶고 과일을 미리 깎아 '후배님'을 맞을 준비를 해 두셨다. 찾아오는 후배들을 맞이하는 마음은 지금까지 당신 삶에서 운문사가 가지는 의미일 것이다.

"정정하십니다. 4회 졸업이라고 해서 연세가 많이 드셨을 줄 알았습니다."

"마음은 하나도 안 늙었어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생각 자체는 늙는 게 아닙니다. 모습이 늙지 마음이 늙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총 스님(운문사 4회 졸업)

50년 전, 그 시절 운문사는.

요새는 모든 것이 좋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 때는 밥을 먹으면 항상 반찬이 부족하고 서너 가지면 풍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은 힘들었죠. 당시에 목욕탕을 지었는데, 학인스님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끌고 내려오고, 밤중이라도 기와차가 오면 기와를 내렸어요. 기와를 지붕에 올릴 때면 학인들이 쪽 서서 손에서 손으로 지붕까지 올렸어요. 흙을 뭉쳐서 직접 기와를 쌓았어요. 그래도 하나도 어렵고 힘든 것을 몰랐어요. 당시 주지스님이었던 묘전 스님께서도 손수 흙을 이겼어요. 자그마한 스님께서 모범이 되시니 우리는 으레 일하는 줄 알았어요. 묘엄 스님께서 강사스님으로 계셨는데, 우리가 일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설탕물 한 그릇 타먹고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예전에는 학인스님들 손을 빌리지 않으면 집도 제대로 안 되고, 일꾼들 부릴 만한 재력도 없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파서 일년을 빼먹고… 월반을 했는데도 7년 만에 강원을 나왔어요. 그때는 다 외워야 진도가 나갔어요. 치문을 다 외웠죠. 옛날에는 사회에도 일이 많듯이 절도 일이 많아서, 낮에는 일하느라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논농사 지으며 간평을 하고, 산감이 있어서 불이 나면 불끄러 갔어요.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예전엔 뭐든지 어려웠어요. 그래도 신심이 있으니 재밌었어요. 정학停學이란 게 있었는데 배우는 것을 중단하고 일한다는 뜻입니다. 반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반이 정학을 받아서 하루 종일 나무하러 가요. 예를 들면 예불시간 전에 빨래를 안 걸으면 정학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요새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그러다고 한 반이 모두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출가하셨나요?

1960년도 정도 될 겁니다. 언니가 다니는 절에 오는 스님이 있었어요. 토굴에 산다고 해서, 토굴이 흙구덩이인 줄 알고 가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스님을 따라갔죠. 스님께서 비유품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었어요. 스님께서도 부처님 제자처럼 잘 알아듣는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스님이 되어 부처님 제자가 되어 가사 장삼 입고 바리때 들고 얻어먹다가 논두렁에서 엎어져 죽어도 하늘땅을 덮고도 남는 복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내 맘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런 법이 있구나. 감복을 했어요. 요즘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고 움직였을까 싶은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만일 삭발염의를 하고 중이 된다면 부처님과 같은 인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

이미 세속에서 사는 것은 마음에서 멀리 갔는데,

“삭발하려면, 부처님한테 절하고, 지금 여기에 세 명도 대중이니 삭발해도 된다.”

“스님, 지금은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대답은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갔어요.

“그러면, 스님 저도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동진출가한테 머리를 깎아야 한다고 해서 쌀을 찧고 마지 올릴 것 준비해서 구곡산 도솔암으로 갔어요. 가서 머리 깎고 마지를 올렸어요. 어깨가 무거워졌죠. 잠시 사숙님들 있는 절에 있으며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운문사에 갔어요.

졸업한 후에는.

10년 정도 선방을 다니다가 다리가 아파서 문수암으로 갔어요. 그 때 생각엔 10년이나 선객생활을 했는데 도를 통하지 못하고 다리는 아프니, 처소를 해서 나같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100살 되신 노스님이 계셨는데 나한테 고방 열쇠를 줬어요.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태 외호를 받기만 했는데 저 노스님을 위해 외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목은 밭이 있어 불을 놓아 밭을 만들었어요. 일꾼들을 샀는데 하는 이야기.

“스님이 삼을 들고 앉아서 일하면서 부처님 얘기 해주면 4번만 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6번은 쉬어야 하거든요.”

순진해서 이 말을 곧이 알아듣고 죽자사자 일했어요. 그렇게 밭을 일궈서 해먹으며 불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두 번씩 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먹으면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다리가 아파서 내려왔어요.



백련선원 대웅전

백련선원이 있기까지.

85년부터 이 절에 살았어요. 터 잡는 것부터 불사를 혼자 했어요. 누가 와서 보면, “절인 줄 알았는데, 아 니네...” 할 만한 절이었어요. 대처승이 살았는데, 알קות했어요. 5평짜리 법당에 시멘트기와를 했는데 비가 썰어요. 석고부처님을 모셨는데 비를 맞아 너털너털 곰팡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변은 적막강산이었고, 높지인지라 주변이 지저분했지요. 혼자 온다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젊으니 욕심도 없어서 이불 한 채 가져오지 않았습시다. 부처님을 믿고 사는 거지요. 부처님 처소가 이래야 하나? 내가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면, 내가 바른 원력 세워 부처님집 세우는데 안 될 것이 있겠나? 이것이 원력이라면 원력이었어요. 쥐 나오고 뱀 나오고 지내에게 물리기도 하고, 산에서 흙이 내려오니까 물길 돌리고, 맑은 물을 찾아가 기계 빌려 땅을 파고, 늪을 메우려고 돌을 얼마나 채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기 산이름이 백련산입니다. 늪에 연이 있어서 지어진 이름 같아요. 원래는 백련사라고 절이름을 해야 하는데 백련사라고 하려니 깨끗해서 티가 더 잘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해서 백련선원으로 했어요. 선원은 참선하는 집이니까 공부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중이라는 것은 한번 먹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탁마하면 돼요. 도반을 잘 만나면 힘이 되고, 좋은 도반이 없어도 같은 반 도반도 힘이 있어요. 목표 하나를 잡아서 나가면 됩니다. 견물생심이라서 돈을 보면 돈을 하고 싶고 도를 보면 도를 보고 싶어 갈광질광하는데 중심을 잘 잡고 가면 됩니다.

스님이 되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중들 시는 절로 보내셨다. 혼자 사는 곳에 뭐 배울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정작 준비가 되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가 몇 해 전에 상좌가 하나 찾아왔다. 스님을 닮아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린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을까? 일하는 것이 수행이었을 긴 시간이 짐작이 되어 온다.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

*간평看坪 : 추수하기 전에 실제로 농작물의 잘 되고 못된 정도를 살펴보는 것

보현등 도행/사교과

동생으로 인하여 큰자비심을
일어나 자비심으로 인하여
반기심을 버리고 반기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네나

변현생인품 





금각사



목조건축으로 유명한 동대사



청수사에서 내려다 본 교토

대학원 일본 졸업여행기

월인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10월 17일 부터 10월 21일까지 4박 5일간의 여정...

초가을 호거산의 단풍이 서서히 물드는 10월에 우리 운문사 대학원 생 일동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갔다.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교야산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온 걸 시샘이 나 한 듯 여행 내내 비가 조금씩 왔다.

여행 첫날

교야산은 4만 3천 평이나 되는 광대한 사찰부지가 있는 곳이고 진언종의 총본산이다. 헤이안 시대(719~1185) 흥법 대사 구카이(空海 : 774~835)가 수행한 곳으로 일본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곤고부지(金剛峯寺)가 있다. 교야산 내에는 약 117개의 사원이 있고,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일본에서 흥법 대사는 가장 유명한 종교적인 영웅으로 남아 있다. 그는 당나라의 밀교를 일본에 전파한 진언종의 개조이다. 이 종파는 즉 신성불을 주장하고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특색이 있다. 일본인들에겐 불교의 부처와 신도의 신은 같다고 하는 신불혼효사상이 있고 신사와



불단이 공존하는 문화라 그런지 신사를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고야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오후노인을 둘러보았다. 고야산의 광대한 삼나무 숲과 수많은 납골당을 둘러보았다. 한쪽편에 불사리가 있는 것을 보고 경건히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여정은 시작했다.

곧게 뻗은 거대한 삼나무들과 이끼들, 온갖 묘비와 비석들이 있었다. 묘비만 약 20만개라 한다. 곳곳에 돌로 만든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지장보살님들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장보살이 수자령 영가, 어린아이 영가를 천도해준다 하는데 특이하게 어린아이의 빨간 턱받이를 한 지장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이 빨간 턱받이가 색이다 바래면 영가가 천도되었다 말하는 이도 있었다.

납골당 산책로를 지나 동룡당燈籠堂이라는 사찰에 갔다. 이곳은 흥법 대사가 입적入寂이 아닌 입정入定을 하고 계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루 두 번 대사께 공양을 올린다 한다. 대사는 육신삼매를 얻어서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서원을 하셨다 하며 이곳에 흥법 대사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다고 했으나 볼 수 없었다.

진언밀교의 성지 곤고부지(金剛峯寺)에 가서 일본 최대의 石庭 반룡정을 보게 되었다.

정원 가운데에 모래와 바위 몇 개들이 있었는데 바위를 둘러싼 모래정원의 기법은 정말 예술 그 자체였다. 우리 순례단은 이곳에 계시는 일본 스님을 만나서 같이 차담을 나누며 법문을 듣는 시간도 가져 보았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고야산 안에 있는 상지원上池院이라는 사찰에 가서 잠을 풀었다. 각방에 다다미와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의 발우공양과 비슷한 일명 '정진요리' 라는 사찰공양을 했는데 1인 1상이었고 일본쌀로 지은 밥은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이곳에 마련된 대중온천탕도 참 좋았다.

둘째 날

다음날 상지원에서 일본식 예불을 30분가량 참여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절문화가 없고 그냥 앉아서 장엄하게 독경만 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해져서 일본문화의 꽃을 피운 시대가 '아스카 시대(592~645)' 이다. 성덕 태자가 섭정하던 시대이다. 그 당시 일본은 백제에서 사원 건축 기사들을 모셔가서 사찰을 지었다 한다.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백제 관음상과 고구려 승 담징 스님의 벽화가 있는 법흥사를 참배했다. 이곳을 포함하여 나라



석정石庭 반룡정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 금강본사



고야산 内 사원



단상가람(근본대탑)

에 있는 사찰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다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본 사찰의 특징은 법당이 우리나라처럼 환하지 않고 어둡고 속내를 비춰주지 않는다. 문화 유산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어두운 관계로 세밀히 못 본 점이 많이 아쉬웠다. 법당을 어둡게 하는 이유는 문화유산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깃불, 그 흔한 조명등도 안 켜다 한다. 법당 내 사진촬영도 절대금지이다. 일본은 참배객에 대한 입장과 배려보다는 문화재 보존을 절대적으로 중요시여긴다는 느낌을 받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이 굉장한 것 같다. 동문으로 대략 10분 걸어가면 일본 국보 목조 반가사유상이 모셔져 있는 중궁사가 나온다. 중궁사와 세계최대 청동대불을 모신 곳이자 목조 건축으로 유명한 동대사를 참배했다.

셋째 날

우리나라 경주와 같이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 교토로 향했다.

일본의 10엔 동전 뒷면에 보면 평등원 그림이 나온다. 보도인(평등원)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구제는 평등하게 이뤄진다'는 뜻이 있고,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 여래좌상은 목조 3미터 조립식으로 만든 불상인데 너무 정교하고 상호가 아름다웠다. 정원과 연못 또한 멋있어서 이곳 자체가 마치 극락정도 같았다.

다음에는 금각사를 갔다. '킨카쿠(금각)'를 중심으로 한 정원, 금각은 삼층으로 옥칠을 한 위에 금박을 입혀서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했다. 일본의 현지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수없이 많았다.

다음은 임제종의 본산인 텐류지(천룡사)로 갔다. 선불장이라고 쓰여진 액이 보였는데 이곳은 수행승이 좌선 수행하기 위한 선당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천룡사 뒷문으로 나와서 울창한 대나무 숲 치쿠린도 거닐어보았다.

빛째 날

우리는 산젠인(삼천원)으로 이동하였다.

마침 일본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참 친절하게 우리들을 안내해주셨다. 금당에 가서 함께 반야심경을 독경하고 같이 기념 사진촬영도 하였다. 스님 말씀으로는 이곳 산젠인은 옛날에는 주지소임을 황족들이 맡았다 한다. 이곳의 왕생극락원과 세월을 묻어주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정원은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었다.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엔라쿠지(연력사)는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초(최징)가 산 위에 초암을 지은 이래 많은 고승을 배출해 온 명봉名峯이다.

이곳은 울창한 삼나무 숲에 자리한 동탑, 서탑, 횡천의 3개 가람으로 이루어진다. 길 따라 걷는 산은 비가 와서 그런지 안개까지 끼어 더욱 운치있고 신비스러웠다.

마지막 날

우리는 가동이 33개가 있는 33간당을 갔다. 천수관음입상을 메인으로 하여 양옆으로 500개씩, 총 1001개의 천수관음입상이 도열해 있었다. 엄청난 숫자와 살아 있는 듯한 불상에 경외감을 느끼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최초의 불교사찰 사천왕사를 참배하고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여행 내내 날씨가 흐려서 아쉬웠지만 종교와 자연이 하나가 된 듯한 어울림은 세계문화유산답게 그 아름다움이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일본의 불교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



동대사 大佛



평등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보드가야 대탑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과/대교과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룸비니동산

성도 후 최초 설법지 사르나트





저희 화엄행자 29명의 스님들은 학장스님과 함께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15박 16일 동안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뉴델리로 입국하여 초전법륜지가 있는 바라나시를 시작으로 8대 성지를 순례 후, 다시 뉴델리로 돌아와 델리박물관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를 참배하고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각 성지에서 조금씩이나마 기도 정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으므로, 아쉽지만 중인도의 산치대탑, 아잔타 엘로라 석굴은 이번 일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지에서 공양물들을 올리고 예불, 입정, 부처님의 생애 독송, 한문경전 독송,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 시간을 가졌으며 올렸던 공양물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몇몇 성지에서는 자유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순례의 특징이었습니다.

첫날, 인도 뉴델리에 저녁에 도착했으므로 호텔 투숙 후, 다음날 바로 바라나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들은 5비구가 부처님을 처음 맞이한 초우칸디스투파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륜이 처음으로 굴러졌고 불법승 삼보가 형성되었으며 부처님과 최초 60명 아라한들의 전법이 개시된 녹야원 사르나트. 오직 중생들을 위해 보드가야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오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그 가르침을 깨닫는 제자를 만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되기 위하여 진도를 떠나셨던 부처님과 제자들과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르나트의 인도 대각회(mahabodhi society) 사원을 참배하여 근대 성지복원에 온 삶을 바쳤던 스리랑카 호법 스님(Angarika Dharmapala, 1864~1933)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사르나트 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이름난 불상도 참배하였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성도지 보드가야로 이동하여 3박 4일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짊짊해진 저녁 하늘 가운데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있는 마하보디 사원의 보드가야 대탑.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고 부처님과 같이 깨닫고자 여러 나라에서 모인 스님들, 순례단체들. 이들 수행자들 사이에 섞여 우리들도 저녁예불을 올리며 보드가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보드가야에 머물고 계신 운문사 선배스님을 만나 대탑 2층의 법당도 특별히 참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 정진하면서 이곳에서 치열하게 정진하셨던 부처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정각산의 유영굴과 수자타 여인의 집터, 우루벨라 가섭3형제를 제도하셨다는 사원을 참배하였고 JIS수자타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인도 최하층민들의 삶이 교육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인상 깊은 모습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왕사성 라즈기르에서는 영축산, 빔비사라왕 감옥터, 칠엽굴, 죽림정사를 참배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최대의 대학이었다는 나란다 대학 유적은 아직 다 발굴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도 그 규모가 대단하였고 작지만 네모 반듯하게 이어진 승방에서 오직 공부하기 위해 모인 스님들을 떠올리며 강원 속 우리들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아름다운 바이살리. 릿차비족과 밧지족 연맹의 수도였던 이곳에서는 최초로 비구니 승단이 이루어진 대림정사와 초기사리탑 터, 케사리아 불탑 등을 참배하였습니다.

다음날, 부처님께서 릿차비족을 뒤로 하시고 떠나셨듯이, 우리도 북쪽으로 이동하여 열반지 쿠시나가르에서 2박 3일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손에 손에 금빛가사를 길게 펼쳐쥐고 공양물과 꽃들을 들고서 열반당에 들어섰을 때, 역시나 우리들은 눈물짓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함께 기도를





기원정사 예불



사리탑 터



룸비니동산 예불

올리고 또 각자 기도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며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반당 옆의 다비장과 사리분배터도 참배한 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러셨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들은 네팔로 향하였습니다.

네팔의 탄신지 룸비니에서도 2박 3일을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온 세상의 축복 속에 이 땅에 몸을 나투신 곳. 온통 고통에 휩싸인 삼계를 마땅히 안온케 하리라 선언하셨던 룸비니 동산의 이른 아침은 너무나 평화롭고 편안하였습니다. 줄지어 가져온 공양물들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 뒤, 각자 마야데비 사원을 참배하고 자리를 잡고 기도 정진하였습니다. 또 국제사원구역 내 한국절인 대성석가사에서 함께 올린 기도는 법당에 가득 울려 퍼지며 중인도 석굴 사원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또한 룸비니 주변에 있는 과거 7불 중 4번째 구류손부처님의 탄신지 고띠하와, 5번째 구나함모니부처님의 탄신지 니그리하와를 참배하였으며 네팔 쪽 카필라성 터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돌아오셔서 머무르셨던 유적지 쿠단, 카필라국의 마지막 왕 마하나마왕이 석가족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결하였던 연못 사가르하와를 참배하였습니다. 그리고 8대 근본 사리탑 중 아쇼카 대왕이 유일하게 허물지 못한 람그람 사리탑에서 부처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며 발길을 다시 인도로 돌렸습니다.

인도에 재입국한 뒤, 인도 쪽 카필라성 터를 참배하고 코살라국의 사위성 쉬라바스티에 도착하여 한국절 기원정사 천축선원에서 2박 3일을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24안거를 보내시며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셨던 기원정사. 이곳 여래향실에서 부처님을 뵈옵듯 함께 공양을 올리며 기도하였고 각자 나무 밑이나 스투파, 승방자락에 흠어져 기도 정진한 시간은 마치 부처님을 모시고 안거중인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또 천불화현탑, 수닷타 장자 집터, 앙굴리마라 스투파를 참배하였습니다. 천축선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에는 우리 순례단의 자자회를 가지며 자기를 점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들





열반지 쿠시나가르 열반당

은 함께 부처님 가신 한 길을 따라가는 수행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대성지 중 마지막 여정이었던 상카시아는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후 지상에 내려오신 곳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유적은 별로 남아 있지 않았지만 성지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은 우리들에게 오롯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그라를 거쳐 뉴델리로 다시 올라온 뒤, 델리박물관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 참배를 끝으로 아쉽지만 이번 성지순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앉으시고 걸어다니시며 교화하셨던 길을 따르는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좀더 깊이 새길 수 있었고 우리가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제자리를 찾아오듯 다시 운문사의 일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세운 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그간 느끼고 배운 바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성지순례라는 소중한 졸업 선물을 주신 운문사의 회주스님, 어른스님들, 대중스님들과 수행자로서 저희들과 길을 함께해 주신 학장스님, 순례 중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써준 소임자 스님들 및 인연 되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 모든 공덕을 시방법계 일체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

간절한 마음

지옥下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화엄반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순간마다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오랜 시자였던 아난 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난 존자는 당시 심한 등창을 앓고 있었는데 고통이 지다 못해 썩어들어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마가다국 범비사라왕의 주치의인 기바라는 훌륭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기바는 왕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스님들의 건강까지도 살피드렸습니다. 기바는 아난 존자가 등창을 앓고 있음을 알고 치료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이 등창을 치료하려면 고통이 심해서 사지를 묶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난 존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존께서 하시는 설법을 듣고 있을 때 저를 치료를 해주십시오” 하고 기바에게 말했습니다.

기바는 아난 존자가 느낄 고통을 염려해서 몇 번이고 설득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바는 아난 존자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을 때 종기를 찢고 고통을 견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마침내 설법이 끝나고...

아난 존자는 기바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설법을 들을 때 치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바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존자께서 설법을 들으실 때 이미 등창을 모두 치료하였습니다.”

그후 부처님께서도 아난에게 “고통이 없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아난이 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하시는 설법을 들을 때 온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픈 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난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향한 깊은 믿음과 신심,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을 찢고 고통을 파내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부처님의 시자로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서 결집 때 경장을 편찬해 불법이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어느 때에도 아난 존자만큼 깊은 신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내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불 전에, 법당에 앉아 대중소리를 듣고 있다가도 대중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반야 심경을 봉독할 때도 입으로만 염불을 할 뿐, 어느 순간부터인지도 모르게 번뇌망상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말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도 다리를 다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바둑을 두고 있을 테니 치료하라고 명하고는 한쪽 다리를 뺐고 치료하는 동안 바둑을 두었다고 합니다. 관우 역시 치료하는 데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저절로 집중이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면 발심과 신심은 절로 일어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삼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간절한 마음을 내고 있을까요? 어떤 누군기는 살아가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누군기는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없어 구걸을 하고 또 누군기는 오늘 하루만 더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도를 이루고자 수행자가 되어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각각 주어진 자신의 시간에, 운문사에서 학인으로서 학인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4년의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난 후에는 또 그 삶의 시간에 수행자로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법문에서 듣기를,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1초, 1초가 모두 전생이 되고 내생이 되며 하루가 지나 일년이 되고 무량겁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는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아 과거 전생부터 어떠한 몸을 받든 시간에 인욕행과 자비행등으로 무량겁을 실천하시어 마침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져 부처를 이루어 중생제도를 하고 계십니다.

맹구우목의 비유처럼 한번 받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받았고 더불어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부처님의 제자까지 되었습니다. 아난의 깊은 신심을 본받아 일분 일초를, 진리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간경하고 기도하고 정진한다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육경을 만나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순간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세생생 중생으로 살게 될지 아니면 불도를 이루어 중생제도를 하며 사는 미래가 될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염경 명법문에서 이르길, 보살이 처음 발심한 뒤에 망일하지 않는 열 가지 방법 중 다섯 번째 恒善思惟自所發心이라 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처음 발심한 것을 잊지 말고 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발심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 재발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해서 모두 다 성불하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❷



수행,
익어가다





- 1 회주스님과 주지스님 도계음악회
- 2 학장스님 고무신에 핀 가을곡화
- 3 통화사 송시 범고대회에 참가한 학인들
- 4 가을포럼
- 5 추석맞이 송편빚기
- 6 도감스님과 화엄반 스님들
- 7 오백전 입재식의 뒷모습
- 8 제46회 통문회 다각스님들
- 9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
- 10 온랭나무 아래 대학원 스님들
- 11 차례법문자 스님들
- 12 통화사 송시 범고대회 무대에서
- 13 오백년 온랭나무 아래 사교반
- 14 팔도송편이 한 접시에





시코쿠를 걷는 여자

— 시코쿠 순례길, 혼자이면서 함께하는 여행

덕념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인류가 포유류 가운데에서 특별해지는 까닭 중에 하나는 직립보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보통의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시작되었던 걷기. 자연스레 당연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바뀐 현대인들에게 걷기는 다시 치유의 방편으로 찾아오는 듯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자신의 암담했던 상황을 슬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이듬해 운영하던 가게가 망했다.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지인은 갑자기 사라졌고, 지극정성을 다했던 남자친구에게는 배신을 당했다.”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저자는 제주의 올레길을 3박 4일 걸었다고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도보여행이 주는 치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걷기에 대한 열망으로 오래 걸을 수 있는 여행지를 찾다가 시코쿠의 순례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 중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는 1,2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1,200km의 불교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일본 불교 진언종眞言宗의 창시자인 헤이안 시대 승려 공해空海(쿠카이, 774-835) 대사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수행했던 발자취가 88개의 사찰을 원형으로 도는 순례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 저자는 도보여행에서 맞이한 순례자들과의 인연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메시지였지만, 저는 이러한 순례길이 구도의 길이 되게끔 했던 공해 대사의 여정이 더 궁금했습니다.

스님은 일본 불교 진언종의 개조開祖로 법명은 홍법 대사弘法大師(코보)입니다. 774년 이 순례길이 있는 시코쿠 가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18세 때 교토(京都)의 대학에 입학하여 유교 경전 등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를 만나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을 백만 번 외우면 모든 가르침의 참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출가의 뜻을 내어, 20세 때 곤조(勤操, 758-827)에게 출가하였습니다. 24세에 『삼교지귀三教指歸』를 저술하여 일찍이 배운 유교와 불교·도교를 비교하고 불교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0세 무렵에 당나라로 건너가 해과(海果)를 만났으며, 해과는 그에게 관정(灌頂)을 베풀고 요가 등을 전수한 뒤 밀교를 일본에 전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하였습니다. 공해 스님은 귀국하기 전 여러 가지 서적과 불상, 만다라, 법구, 해과의 유물 등 밀교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들 자료는 뒤에 일본 천태종의 사이초(最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본 천황의 신임을 얻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밀교 경전을 널리 전파하고 이른바 동밀(東密) 일파를 개창하였으며 고야산(高野山)에 공고부사(金剛峯寺)를 세우고 교토의 도지사(東寺) 건립에 참여하는 등 진언종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62세의 나이로 공고부사에서 입적하였습니다.

스님이 일으킨 진언종은 밀교를 받아들여 마음(정신)과 육체(물질)의 합일을 강조하고 현세에서의 이익을 인정하여 당시 귀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코쿠의 순례길은 쿠보 대사의 수행 흔적을 쫓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불치병과 난치병에 걸린 이들이 부처님과 쿠보 대사의 위신력으로 치유받고자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바라기도 하고 누군가의 명복을 빌고자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례를 하며 입었던 백의(하쿠이)와 삿갓은 수의가 되고 순례를 하다 길에서 죽으면 얼굴을 덮는 관 뚜껑의 역할을 할 만큼 죽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순례길에서 만난 오헨리상(다른 순례자)들과 가족 같은 유대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의 보시 행위 속에서 세계 공동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례자를 자신을 대신해서 걷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낌없이 나누었다. 무언가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순례자들의 걸음을 응원하고 도왔다.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부터 잡자리를 선뜻 내어주는 사람까지, 낮은 순례자에게 그들이 베푸는 마음은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순례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길 위에서 만난 순례자들은 자신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있었다. … 나이, 국적, 직업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나누는 마음만이 길 위에 존재했다. …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공동운명체이다.”

가끔 경내 해탈문에서 사리암까지 나반 존자님을 뵈려 산길을 걷습니다. 대략 왕복 2시간 30여 분! 녹녹지 않은 길입니다. 산비탈을 한참 올라 무수한 계단을 오르면 정상쯤에서 존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하산시에는 언덕길을 거의 뒷걸음으로 내려오지만, 존자님께 삼배 올리고 내려오는 길에서 평상함의 안온이 찾아들곤 합니다.

1,200km의 순례길도 한 걸음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신체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를 돌아보고, 너를 만나고, 우리를 생각하며 혼자일 거라고 여겨질 때 쿠보 대사의 가피가 함께하고 어느덧 108사찰을 돌아 순례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걸어볼 일입니다. 🍎

사홍서원 이정표 따라가기

법광 / 대교과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강
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본
래 마음 또는 불성, 또는 양심이라고 불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라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극히 단순해진다. 있
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의 내
면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대승불교의 시
작이지 않았을까? 감히 제안해 본다. 결국
나와 너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
재, 그리고 깨달는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
신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숙고해 본다.

한 해의 결실을 맺고 미련없이 떨궈버리는 은
행나무처럼 나는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마치 이정표 없이 길을 떠난 여
행길처럼 자꾸 멈춰서곤 했다. 수행의 결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을 때 예불시간에 하는 사홍서원을
통해서 수행의 결실을 점검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홍서원은 시방 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네 가지 큰 서원을 말한다. 고해에
서 해매는 한량없는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
리라는 서원. 한량없이 많은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
어 버리겠다는 서원.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의 법문
을 남김없이 다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서원. 기필코
불도를 이루리라는 서원. 이 네 가지 서원이 수행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나는 첫 번째 서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늘 궁금
했었다. 대승불교가 그러하듯이 앞, 뒤 생략하고 본론
만 얘기해 어렵게 느낀 적이 많았다. 하지만 수행을 하
다 보니 '남을 건지다' 라는 마음은 곧 '나를 건지다'
라는 공식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애명상
을 할 때 이 공식을 좀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
데, 나와 인연되거나 인연이 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실제 행복해지
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 이라는
단어는 자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졸
업여행 차 다녀 온 인도에서의 행복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 온 행복과는 전혀 다른 체험이었다. 그래서 나
의 기준만으로 생각하는 행복을 버리기로 했다. 그러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라는 첫 번째 이정표는 '중
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문장으로 재해석
됐다. 그렇다. 출발은 언제나 '나' 로부터이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그런 나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 사이 모르고 살았던 나의 거대한 번뇌들 앞에 좌절했다. 번뇌를 끊는 방법은 커녕 심지어는 ‘번뇌’ 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 번뇌에 대한 바른 견해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바로 알기의 첫 시작은 ‘자각(알아차림)’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자각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행복해지고 싶어’ 등등… 부처님께서서는 고통을 자각하고 떨치고 이르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설하셨다. 자신의 번뇌를 자각하지 못한 채 수행할 경우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만나게 된다.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열심히 몸 고생만 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도 달라지는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번뇌는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다.”라는 교수스님 말씀이 두 번째 이정표의 새로운 해석이 되었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수행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의 앞선 선지식은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런 수행의 갈림길에서 번뇌와 장애를 의논하고 조언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지식과의 인연은 어떻게 지을까? 의문이 생길 때 나의 인연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자 모든 것이 새로운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들, 소임 덕택에 가까워서 뵈 수 있었던 오롯한 회주스님의 일상, 불법과 함께 한 교수스님의 강의 속에서, 말없이 지켜봐주시는 은사스님의 눈빛 속에서, 마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처럼 언제나 함께 하고 있었다. 큰 산처럼 저 멀리 바라보는 유명한 스승이 아니라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고 번뇌를 같이 공감해 주고 고민해줄 수 있는 분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그런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자 세 번째 이정표를 세운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깨달음’이다. 아직도 나는 깨달음이 무슨 황홀한 경지이거나 정말 커다란 보물을 하나 챙기는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강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본래 마음 또는 불성, 또는 양심이라고 불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라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단순해진다.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대승불교에 대한 나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정표인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정표와 맞물린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감히 제안해 본다. 결국 나와 너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 그리고 깨닫는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숙고해 본다. ❀

운문소식



▲ 운문사 신도회 창립법회



▲ 동화사 승시 승가법고대회



▲ 운문사승가대학 동문회



▲ 제2회 경상북도 도계음악회



▲ 스님과 함께 떠나는 불교음악 여행

- 9월 13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있었습니다.
- 9월 17일 ‘오백나한과 함께 하는 백일간의 수행’ 입재식이 오전 10시 오백전에서 있었고, 입재식 후 대웅보전에서 운문사 신도회 창립법회가 있었습니다.
- 9월 27일 치문반 첫 논강이 있었습니다. 학장스님을 비롯한 교수스님들과 각 반의 대중이 청풍료에 모여 논강을 함께 듣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 10월 4일 추석맞이 차례가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추석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6일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8일 승가법고대회가 동화사에서 있었습니다. 화엄반 휴정, 탄현스님, 사집반 로운, 진오, 자운 스님으로 구성된 참가자 스님들은 운문사 법고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해인사와 나란히 1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10월 9일 제46차 운문승가대학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선배 스님들이 다녀간 운문사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 10월 10일 운문사 대중 및 산내암자, 운문사 봉사자들이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불교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 10월 13일 ~ 15일 2박 3일간 사교반스님들이 영덕 교수스님 인솔 하에 진관사 국행수륙제에 다녀왔습니다.
- 10월 17일 ~ 21일 4박 5일간 대학원 스님들이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19일 ~ 11월 3일 15박 16일간 학장스님과 화엄반 스님들이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26일 ~ 11월 2일 7박 8일간 가을휴장으로 치문반, 사집반 스님들의 출타가 있었습니다.
- 11월 4일 제2회 경상북도 도계음악회가 대웅보전 앞에서 열렸습니다. 회주스님과 어른스님, 학인스님, 운문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을날의 아름다운 운율을 감상하는 자리였습니다.
- 11월 16일 오후 1~4시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최 ‘스님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박범훈 불교음악원장님의 불교음악 강의와 음악회가 선열당에서 있었고, 저녁 7시 윤구병 선생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 11월 18일 ~ 19일 김장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23일 ~ 25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수미 해주 스님의 화엄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 11월 25일 ~ 26일 ‘나를 찾아보다’라는 주제로 경주 황룡원에서 진행된 제63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지성 교수스님과 41명의 학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1월 27일 화엄반 스님들이 학장스님과 화엄반 스님들이 경산에 있는 운문유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12월 1일 가을철 종강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분

- 이복자
- 이미정
- 하옥희
- 윤금자
- 이기태
- 정해옥
- 한기능
- 송명지
- 이정숙
- 이화진
- 한성륜
- 배종욱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 - 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發想

말보다 글이 편하다는 단순한 말상에서 가볍게 시작한 편집부 소임.

교정보던 글이 사라지고, 어느새 새로운 글이 되었을 때.
 원고마감일을 넘기고도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
 어른스님을 찾아뵈면서 내 안에 물을 것이 없었을 때.
 그저 녹음기만 꺼내놓고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행한 운문지.

시행착오를 겪고, 배우면서 해 왔던 소임의 끝자락에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 생각을 적어봅니다.

운문사의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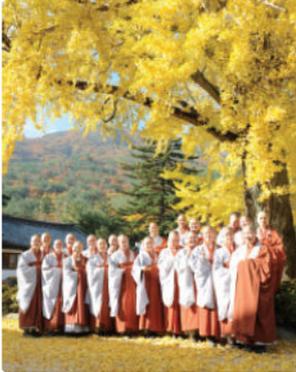
- 智燬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2018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〇〇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 집 기 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2018년 2월 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 형 일 시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전 7시
교 통 편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학장 일진·주지 진광

-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8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 집 인 원 〇〇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 집 기 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 형 일 시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보현율원 율주 명성·원감 진광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42호·2017년 12월 9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지육 / 편집위원·형원, 휴정, 동호, 불수, 성경, 선아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지육(가을회향) / 삽화·도원하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